

“다담선 뿌리찾아 20여년 국내외 누벼”

‘한국역대고승의 茶詩’ 낸 무산 스님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시(茶詩)를 짓고 음송하였던 차 생활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차 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내면 세계에는 바로 다담선(茶湛禪)이라는 선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역대 고승들의 다시를 모아 엮은 <한국 역대 고승의 다시(명상)를 내놓은 무산 스님(경주 해회선원 주지)은 선 생활화의 근본이 다도이며, 그 핵심이 ‘다시’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스님은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것을 다담선’이라고 말한다. 이 다담선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중국 송나라 때의 백운 수단(1024~1072) 선사. 그가 차를 마시면서 화경청적(和敬淸寂)과 명선(茗禪)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다담선을 열었다는 것이다.

효당 스님(전 해인사 주지)에게 다도를 배운 무산 스님은 지난 68년부터 중국과 일본 등 차 생산지를 답사하며 차 연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스님은 지금까지 다인들이 알고 있는 ‘다도’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유구대사가 아니라 교연대사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특히 다담선의 수행법을 기록한 <다담청규(茶堂淸規)>와의 만남은 스님의 차 연구를 급진화하게 했다. 바로 다담선의 원류와 우리 나라 다담선맥의 뿌리를 찾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스님은 <다담청규> <중국선종대사전> 등 동양 고전을 통해 다담선의 실체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다담선을 수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냈다.

“다담선은 백운 수단 선사가 양기 방회 선사의 문하에서 수행하던 중에 화철대오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다담선을 들여온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입니다. 스님은 1084년 송나라로 유학을 떠나 백운 수단 선사의 법제자인 원조 종본 선사로부터 다담선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우리 나라 다담선의 초조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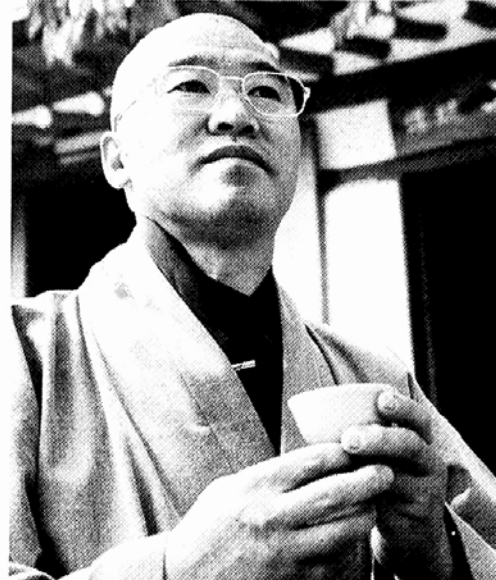
무산 스님은 20여 년 동안 대각 국사 이후의 여러 고승들



의 문집과 어록 등을 샅샅이 살펴 26명의 한국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했다. 대각 국사로부터 시작되는 다담 선맥은 고려의 진각·진정·원감·백운·태고·나옹 선사까지 이어졌다. 조선에서는 함허 대사를 시작으로 설잠·보우·서산·정관·사명·부휴·소요·취미·허백·중관·백곡·월거·함월·지환·연담·해장·초의·법해 선사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해 선사 이후로는 다담선의 맥이 보이지 않다는

고승문집·어록 등 조사 26명 한국다담 선맥 정립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무산 스님은 우리 나라 다담선의 수행 화두가 ‘명선(茗禪)’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고 있다. “명선이란 차를 마시며 수행을 함에 있어 차나무에서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선의 싹이 나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개창조 백운 수단 선사가 깨달음을 얻고 토해낸 공안입니다. 이러한 연원을 갖고 있는 다담선의 맥이 불가에서 사라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책은 다담선의 묘미를 알게 하는 역대 조사스님들이 남



◇미국 시카고 주립대학에서 6년간 동양사학을 강의하고 지난 88년 귀국한 무산스님은 불교역사 바로세우기 위한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다.

긴 다시를 찾아내고 우리말로 옮겼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나라 다담선의 선맥을 처음으로 정리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다담선맥을 정립하는 것은 불교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무산 스님은 앞으로 고승들의 유고집, 열반승, 오도승 등도 출간할 예정이다. 값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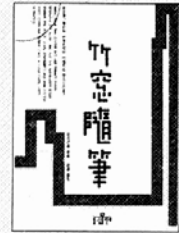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죽창수필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손발이 춤추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해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삼매경에 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지에 든다는 것은 복잡한 세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특히 일년에 책 한권도 제대로 읽을까 말까할 정도인데 삼매경의 경지라니...

그러나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불서를 읽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서 읽기가 참 불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면, 우선 자신의 성향에 맞는 불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열두해야 할 점은 책이 독자를 압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다. <죽창수필>(불광)은 이런 기준에 딱 들어맞는 책이다. 사람 사는 얘기와 재미난 이야기들은 독자



세상사 얘기하듯
여운·불심 묻어나는
큰스님 설법 에세이

들과의 거리를 좁혀주고, 법문까지 들려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이런 점이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책에 몰입하게 하는 ‘죽창수필’의 힘이다.

글쓴이는 중국 항주 운서산에 일대총림을 창건하여 선·염불·계율에 대해 투철했던 운서 주광 스님. 스님이 79세 되던 해 대나무 창(竹窓) 아래에서 붓 가는 대로 쓴 것이 이 책이다. 원로 스님이 쓴 글이어서 친숙하면서도 날카롭다. 물론 대담하는 짧은 글이 440여 편이나 실려 있으나 그 요점은 불심을 밝히는 데 있다. 특히 아무 비판 없이 내려온 구습이나 그릇된 풍습을 지적한 점은 눈 여겨 볼만하다.

이처럼 이 책의 글들은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새롭게 다가온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책의 가치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나친 호평은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 오히려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 밝은 독자들에게는 이 책의 진솔함이 신선한 깨달음으로 다가 갈 것이다.

만약 한 줄의 글도 읽을 수 없을 만큼 바쁜 분이라면, 그냥 사서 책상 위에 올려 두기라도 하라고 감히 권한다. 저절로 읽게 될 책이기 때문이다. 연관스님 옮김. 값 1만 8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이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달
2	석가모니 지혜동화	허 순 봉	은 하 수
3	산신계 가본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 세 채	호 색
4	천수경 천수신앙	해 국	효 립
5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6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립
7	반면에 은혜를 주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8	석가모니 슬기동화	허 순 봉	은 하 수
9	민행-허버트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립 원
10	붓다	대혜시진지	혜 누 리

도서 안내:(02)737-0695

생태원리 살린 뒷간 철학

자연을 꿈꾸는 뒷간 이동범 저음



“똥·오줌에도 도(道)가 있다는 말이 있고, 뒷간으로 그 집의 품격을 가늠한다는 말도 있다. 사람의 진실됨은 우리가 은밀하게 여기는 뒷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따라 알 수 있다.”

사찰 해우소 즉 뒷간의 지혜에 감복해 자신도 꼭 그런 뒷간을 짓고 싶었다며 귀중한 이동범 씨(겨레문화답사연합 대표)가 사찰 해우소를 비롯 뒷간에 담긴 지혜와 생태적 가치를 살린 <자연은 꿈꾸는 뒷간>(불녘)을 내놓았다.

이 책은 똥이 다시 밭으로 순환되는 생태적 원리와 이치를 담고 있다. 글쓴이는 사찰 해우소 속에 담긴 생태적 원리를 보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스님들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비탈 구조의 활용과 산 속에 자리잡은 사찰

의 지형적 조건, 그리고 이에 맞게 재·부엌토·나뭇잎·인분 등을 섞어 퇴비로 만든 것을 보면 인간과 자연의 만남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는 사찰 해우소의 생태적 원리를 올바르게 인식, 우리의 환경·문화적 자원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뒷간 문화, 뒷간의 생태 원리, 새로운 뒷간 문화를 위하여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생태적 뒷간의 사례와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현대 인들은 뒷간 하면 불결한 곳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하지만 저자는 단언한다. 전통 뒷간이 수세식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고 위생적이라고.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올가를 읽고 싶은 불서 ‘스님의 수필’ 1위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

네티즌들이 올 가을 가장 읽고 싶은 불서는 ‘스님이 쓴 수필’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계 최초 일간 인터넷 신문 붓다뉴스닷컴(buddhanews.com)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시한 ‘올 가을 읽고 싶은 불교책’ 설문조사에서 ‘스님이 쓴 수필(38%)’이 가장 읽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7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선사들의 어록 및 전기(34%)’도 스님이 쓴 수필에 못지 않은 호응도를 보였다. 이어 네티즌들은 올 가을 읽고 싶은 불서로 불교역사서(10%), 부처님 일대기(8%), 교리·법문서적(8%)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가법적 접근에서 수행의 향취도 느낄 수 있는 불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갈등의 中-티베트 역사

김한규 저음 티베트와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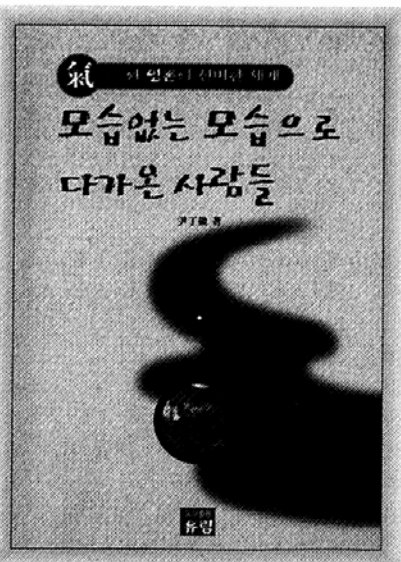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와 포탈라궁, 그리고 흰눈이 덮인 높은 산... 서장(西藏)이라고도 불리는 티베트는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지만 물리적 거리 이상으로 심리적 거리는 아직 멀다.

시간(티베트와 중국)(소나무)은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글쓴이 김한규 교수(부산여대)는 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가 아닌 인도 다람 살라에 망명 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탐구한다. 이 책은 토번시대의 티베트와 당대의 중국의 관계가 독립한 두 나라의 긴장 관계였음을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티베트 지역을 통일한 토번이 당의 주요한 위협세력이 되면서 두 나라는 갈등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것. 이후 몽고와 세계 제국을 형성하면서 티베트와 중국은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맞이한다. 두 나라 사이에 단월(檀越) 관계라 불리는 공시(供施)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배경으로 티베트의 대라마가 티베트 정교의 최고 권위를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나라로 접어들면서 티베트 지역의 정치 세력도 분열되고 명나라에 의한 책봉 조공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관계의 변화가 청나라 때에도 지속되었다가 국민당 정부와 그 뒤를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개입과 이로 인한 14세 달라이 라마의 망명과 망명 정부 수립에 이르는 길고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논쟁을 정리한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와 신비한 종교의 땅 티베트와 중국의 오랜 갈등의 관계를 샅샅이 살피고 있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신비한 기(氣)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윤정주 저 도서출판 유림 펴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몸의 아픔이 천도가 안된 보이지 않는 영혼(靈魂)의 의식인 기(氣:에너지)체가 사람의 몸 속에 시공을 초월해 들락거리므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초능력적 체험 이야기를 세계역사상 최초로 그 이론을 세밀하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밝혀놓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초능력을 소유하고 나서도 저자의 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을 왕래하며 중국 원극학의 진인(眞人)인 장지상(張志祥) 교수로부터 기(氣)와 광(光), 음(音)의 이론으로 구성된 원극학(元極學)을 전공받았으며 원극학(元極學)연구와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 윤정주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아무 곳에서나 어떠한 의식(儀式)도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1~2초 내에 영가천도(靈駕薦度)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아픔을 원격(遠隔)으로 해결하는 수행(修行)에서 얻어진 독특한 초능력을 견비하고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 주고 심신의 안정을 빠르게 하며 편안하게 살아가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기(氣:저자의 마음에너지)를 서술과 대구의 수련원에서 시공을 초월해 나누어주며 해결해 주고 있다.

영남일보, 매일신문 논평기사중에서 -

지금도 우주공간에 떠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또 그렇게 떠돌게 될 예비영혼들(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의 구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글 솜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또한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지름길로 인도하기 위한 생각에서 미흡한 실력이지만 수련원을 열었습니다.

- 책의 본문에서 -

영가천도에 관한 저자의 초능력 체험 이야기와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신비하고 재미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개별적인 영가천도 초능력 전수가 가능함

윤정주 저 <값 15,000원>